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Hymn 21	다 같 이
기 도	Prayer	김정순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하 2:12-32	인 도 자
설 교	믿음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399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이현미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기도회	오전 6시(월-금)
가정교회예배	각 가정교회별로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 회 사 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 역	남관희 집사	안찬호 성도
선 교 사 역	서정길 장로	이오현 집사
미디어 사 역	박종갑 장로	윤지호 집사
실 버 사 역	김상안 집사	김정순 권사
친 교 사 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 역	이오현 집사	안미나 집사
양 육 사 역	Kaitlan Hronek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8년 1월 20일 제77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침내 왕이 된 다윗 주변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4장에까지 이어지며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막내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과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요압이 바로 그들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저들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다윗을 통해 보이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나 다윗이 왕이 되는 공을 세운 요압은 하나님의 왕 되심 보다 자기가 미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왜? 자신들이 세운 왕을 통해 누리고 싶은 권세나 돈 또는 개인적인 욕심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생과 교회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여지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목사가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목사가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사를 앞세워 교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가장 강력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동생 스루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싸움에 능한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실력으로는 최고였습니다. 요압의 도움이 없이는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불가능할 정도로 유능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름부음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던 다윗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압과 요압의 형제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길 원하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을 폭력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길 원했습니다.

요압과 대적하였던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장군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 같았지만 사실 그는 교활한 사람이요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의 유다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 아브넬은 사울의 왕가를 이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드러나 명분이었고 사실은 무능한 이스보셋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회주의자였던 아브넬은 사울의 왕가가 점점 약하여져 가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사울의 왕가에 희망이 없음을 판단합니다. 그러자 그는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윗에게 넘길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브넬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권력이 있느냐를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브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능력 있다고 말합니다. 처세술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생애에 등장하는 골리앗과 도엑, 블레셋과 아말렉은 명백한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넬과 요압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우리 역시 그들을 우리 편이라고 가정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것이 결국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 착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가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럽고 기회주의적인 아브넬의 방법이나 폭력적이고 정복적인 요압의 방법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들과 이들의 방법을 극복하지 않고는 다윗을 통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도 확장시킬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유지되고 지속되느냐가 어떤 결과를 얻느냐 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할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결과와 성공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어떠한 삶의 과정을 거쳐 왔느냐가 내가 이룬 성공과 결과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의 심판은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방법에 있습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실현되기 위해 힘쓰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2. **신년 가정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일자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교회에서 후원하는 14명의 어린이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받아 가시고 격려의 답장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오늘 식탁교제 시간에 박선영 집사님이 아들 동건이의 백일을 맞아 떡과 과일을 대접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설교 CD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리고 싶은 곳이 있으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설교시리즈도 가능합니다.(축복의 통로, 예수님의 비유, 요나서 강해, 룻기강해, 다윗강해)**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392.00	
감사헌금:	$250.40	
주일헌금:	$17.00	
특별헌금:	$0.00	**합 계: $1,665.4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